

안철수 정치개혁 '비전선언문' 발표

“대통령 사면권 국회동의 거쳐 행사”

‘공수처’ 신설·대통령 임명직 10분의 1로 후보단일화 방식 ‘현장·전문가·여론조사’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7일 정치개혁과 관련해 “정치인은 모든 이권과 단절하고 조직화된 소수보다 힘 없는 다수의 편에 서야 한다”며 “국회가 특권을 버리고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시스템을 정치개혁으로 바꾸겠다”며 7대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그것이 남북기본합의서로부터 6·15, 10·4 선언, 그리고 남북한 마·일·중·러가 함께 합의한 9·19 공동선언의 합의정신”이라고 강조한 뒤 “남북간 중요한 합의는 국회 동의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그것이 남북기본합의서로부터 6·15, 10·4 선언, 그리고 남북한 마·일·중·러가 함께 합의한 9·19 공동선언의 합의정신”이라고 강조한 뒤 “남북간 중요한 합의는 국회 동의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무등산 정상 가을 정취 무등산 정상이 개방된 7일, 울긋불긋한 원색의 옷을 입은 등산객들이 역새발을 헤치며 서석대를 거쳐 천왕봉으로 향하고 있다. 울머 세 번째로 진행된 무등산 정상 개방행사는 이날 하루 4만여명의 등산객이 참여,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F1 코리아 그랑프리 ‘시동’

F1 머신 영암 서킷에 본격 입국 사이 공연 등 문화 이벤트 풍성

100억원대 F1 머신의 한국 반입이 8일부터 사실상 시작되는 등 F1 코리아 그랑프리(12~14일)의 합한 시동이 걸렸다.

이번 F1은 대회 운영과 경기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한국인이 맡아,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힘’으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첫 실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F1대회조직위원회는 7일 “일본대회가 이날 끝나 8일부터는 각 팀이 전용기를 통해 머신과 장비 등을 운송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외부에 알리지 않고 머신과 선수들이 이동하는 F1팀들의 특성상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지만, 현재 영암서킷에 일부 장비의 반입이 시작되는 등 F1 한국대회의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또 지난 6일에는 서울시 한강공원 잠수교에서 지난해 F1 그랑프리 우승의 주역 레드불 ‘RB7 머신’이 한강 잠수교를 질주하는 행사가 열려 F1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렸다.

대회가 가까워지면서 대회 운영 곳곳에서 활동하게 될 한국인과 올해 처음으로 대회 운영을 맡은 조직위원회의 활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F1 코리아 그랑프리 경기위원장에 최용석(39) 씨가 선임됐다. 경기위원장은 모터스포츠 대회의 경기 진행을 책임지는 자리로 피트, 패독, 코스 등에 배치된 오프셜 800여 명이 통솔한다.

또 자동차경주협회는 F1 코리아 그랑프리 경기사무국장에 주지은(39) 씨를 선임했다. 이로써 지난 4월 의료 총책임자로 방희승(55) 전남대 의대 교수가 선임된 데 이어 경기위원장, 경기사무국장, 의료 총책임자 등 주요 보직을 한국 사람이 맡게 됐다.

또 최근 세계적인 스타가 된 가수 사이의 공연 등 F1을 즐기는 또 하나의 재미인 문화 공연도 관람객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사이는 14일 결승전이 끝나는 오후 6시 경주장 내 사설공연장에서 특별공연을 열고, 대회 전일권(12~14일)이나 일요일권(14일)을 소지한 관람객은 무료 관람할 수 있다.

F1 2012 코리아 그랑프리 개요. 대회기간 10월12~14일, 2012시즌 이번 대회 라운드 16라운드(한해 세계 20개국을 순회하며 총 20라운드에 걸쳐 경주 후 리운드별 특징을 합산하여 챔피언 결정) 포함 1(F1) 소개,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위치, 레이아웃도, 코스 정보 등 상세한 F1 대회 정보.

문재인 정치쇄신 ‘분권형 대통령제+선거구제 개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정치쇄신을 위한 정책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쇄신을 기성정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정책 항목이다.

실상 단일화의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안 후보가 7일 정치쇄신 비전을 발표하면서 문 후보의 정치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 경감부라는 지적이 많다. 더욱이 그마저도 후보 비서실 인선이 친노(친노부원) 중심으로 이뤄져 혁신 선대위 구성이 반감됐다.

광신대학교 2013학년도 학부 수시 2차, 2013학년도 대학원 입학 모집. 원서접수: 11. 12(월)~16(금), 11. 12(월)~30(금).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롯데제이티비 롯데제이티비 Global 여행 기업입니다. 1577-6511. 이달의 우수대리점. 롯데제이티비 고객특권. 롯데제이티비 포인트 적립. 롯데제이티비 여행 상품. 롯데제이티비 여행 상품. 롯데제이티비 여행 상품.